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취소” 촉구

탈핵단체, 영광서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 열어

“출력 급상승 원인 규명할 때까지 정지해야”

호남지역 탈핵단체들은 28일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 34개 시민사회 단체·정당이 참여한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와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 권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를 열었다.

비상회의 등은 “출력 급상승 사건의 원인을 인체로 결론 지으면서 재가동을 결정할 것이 인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9일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밝혔다”며 “원안위는 주저어실 폐

쇄화로(CC)TV 설치가 확인되면 재가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바로잡지 않으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안위가 내놓은 대책에 위협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체계 등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비상회의 등은 원안위가 내놓은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들은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무자격 정비원의 조작 △원자로 출력 계산오류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지침서 위반 등 인적오류로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대책의 타당성을



호남권 탈핵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1호기 재가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CC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할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력 급상승 사고의 발단이 된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에서 세 차례 실패한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비결함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원안위 발표에

의문을 표시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수립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한빛 1호기는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민노총 광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엄정처벌 촉구

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대법원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상식에 맞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판결로 재벌들의 경영세습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사법부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 내린 물지마시 선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벌 총수의 구속은 재벌 회사의 위기관리는 근거 없는 허구를 뿜는 대기업이라는 집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또다시 이 부회장을 봐주는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일 것”이라며 “대법원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상식에 맞는 준엄한 처벌로 재벌의 탈법범 경영세습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일명 ‘안중범 수첩’에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제의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국정농단 증거들과 연결돼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해 ‘안중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본부는 “법원이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빠지기 판결로 일조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은 한국 법원의 고질적인 빠지기 선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대피는 질서있게 2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주민들과 초곡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포항시가 초곡리에 준공한 다목적 재난 대피소 준공에 맞춰 진행했다.

‘27명 사상’ 광주 클럽...서구청, 현장조사 당일 춤 허용업소 지정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할 지자체가 지정업소 변경 지정을 하루 만에 마무리하거나 안전요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졸속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 서구의회 클럽 구조조사 붕괴사고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구청은 광주시 서구 객사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 7월11일 공포했다.

사고가 발생한 A클럽은 4일 뒤인 7월15일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을 서구에 제출했고 사흘 뒤인 18일 광주 서구 직원들이 A클럽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같은날 A클럽에 춤 허용업소 지정증 발급했다.

또다른 신청업소였던 B주점은 8월 19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했고, 하루만에 현장조사와 업소지정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A클럽의 경우 안전요원 명단에 공동대표 2명을 포함시켰던 사실도 추가

로 확인됐다. 특히 대표 중 1명은 소방관리자로도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특별위원들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느냐’, ‘너무 빠르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등의 이의가 나왔다.

서구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며 “생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능동적으로 행정업무에 나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처리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신봉우 기자

만취 선장 운항중 ‘쿨쿨’...해경에 적발

술을 마시고 운항하던 중 잠든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10분쯤 진도군 하조도의 한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5톤급 낚시어선 A호(5.62톤, 승선원1명)의 운항이 수상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했다.

출동한 목포해경은 A호에 정선명령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A호에 접근해 승선한 해경은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선장 B씨(40)를 발견하고, 어선을 직접 서명함으로 임항조치했다.

선장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12%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은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종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돌멩이서 ‘DNA’ 50대 차량털이범 달미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주차된 차량 창문을 돌멩이로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깨고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걸음걸이가 불편한 것을 알아냈지만 사건 당시 많은 비가 내려 인상착의를 구별하기 어려워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학수사팀은 현장 부근의 돌멩이에서 박씨의 유전자(DNA)를 확보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환청 듣고 주유소 주유기 불 지른 40대 조사

장성경찰서는 주유소 주유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7일) 오후 4시50분쯤 장성군 주유소 주유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주유소 직원이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꺼 큰 사고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질러야 나가 산다”는 환청이 계속 들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항 정박 화물선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충남 태안항 인근에서 입항 대기하던 홍콩 국적 화물선에서 시가 3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100kg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국내 코카인 압수량 최대규모로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충남 태안항 인근 묘박지에 정박한 홍콩 국적 화물선 A호(94톤)에서 코카인 100.764kg을 압수했다.

A호 지난 7월 7일 콜롬비아의 한 항구에서 출항, 싱가포르를 거쳐 25일 오전 2시 10분쯤 충남 태안항 인근 묘박지에 도착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으로 화물선에 접근한 후 세관과 함께 선박에 승선, 정밀 검색을 통해 선체 내 뒷 돛을 보관한 장소에서 숨겨진 코카인을 찾아냈다.

A호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이 실려 있다.

해경은 미국 해양경비대(USCG) 등으로부터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 A호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호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왔다.

화물선에는 필리핀 국적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코카인이 실려 있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양경찰청은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나오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